(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316-342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316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새한글성경』의 문체론적 특성 연구
— 장르 문법 기반 —

이관규*

1. 서론

1.1. 연구 목적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대와 언어를 초월하여 인간의 삶과 신앙을 형성해 온 고전 텍스트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어 성경 번역은 초창기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곧이어 개화 인사들에 의해서 시대별로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1882), 『신약마가젼복음셔언히』(1885), 『신약젼셔』(1900), 『셩경젼셔』(1911), 『셩경개역』(1938), 『개역한글』(1961), 『표준』(1993), 『개역개정』(1998), 『새번역』(2004) 등 시기별로 나온 개신교판 번역 성경들은 나름대로 한국어 문체의 역사와 변화를 반영한 것들로서의 가치가 있다. 최근에 12년간의 작업 끝에 나온 『새한글』(2024)은 현대 한국어의 문체적 흐름을 반영하여, 기존 번역본들과는 다른 여러 언어적 선택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새한글』은 대한성서공회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 12월에 발간한 성경 번역본이다.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직접 참여한 이 성경은, "현대 한국어 사용자에게 더 쉽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나왔다.[1]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역개정』이 문

* 고려대학교에서 국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kklee@korea.ac.kr.

1) 『새한글』은 2021년 11월에 신약과 시편을 담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1차로 나왔고, 나머지 구약까지 모두 담은 완역본이 2024년 12월에 나왔다.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 머

어체 중심의 번역을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서, 『새한글』은 구어체와 현대적 문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일상 언어에 가까운 성경을 지향하고 있다.

이두희에 따르면, 이 번역본은 단순히 원문을 한국어로 변환한다는 것을 넘어, 신학적인 정확성을 담고, 젊은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한국어 어법에 맞게 번역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순이나 대명사 등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짧은 문장 표현을 통하여 다매체 시대의 젊은 세대를 고려하고, 높임 표현이나 시제 표현 등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번역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한다.[2)]

이 논문에서는 『새한글』의 문체론적 특성을 장르 문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66권에 달하는 신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 등 장르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들 장르가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변별되고 있는지 살피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칭 대명사 표현, 접속과 종결 표현, 인과구문 표현의 문체적 차이를 장르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한다. 결과론적 얘기가 되겠지만, 『새한글』에 나타난 인칭 대명사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접속과 종결 표현은 의사 전달의 명확성을 드러내 주며, 인과구문 표현은 전달 내용의 인과관계를 잘 보여 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교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개역개정』과의 비교를 통해 『새한글』의 문체론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2. 연구 방법

1.2.1. 장르 문법과 성경 번역

본 연구에서는 장르 문법 이론을 기반으로 『새한글』에 나타난 문체론적 특성을 갈래별, 곧 장르별로 살피도록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역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성경의 문체를 인칭 대명사, 접속 및 종결 표현, 인과구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장르 문법은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언어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갈래, 곧 장르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문법 모형이다.[3)]

리말에서는 『새한글』의 취지를 "원문에는 좀 더 가깝게, 우리말로는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되도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영삼, "머리말",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2024), 5-6.

2)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224-251.

3) 장르 문법(Genre Grammar)은 할리데이와 하산, 크리스티(M. A. K. Halliday, R. Hasan, and F. Christie,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마틴(J. R. Martin, *English Text: System and Structure* [Amsterdam: John Benjamins, 1992]), 에긴스(수잔 에긴스, 『체계 기능 언어학의 이

장르(Genre)는 담화가 특정한 사회문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는 일련의 언어적 구조 유형이다.[4] 즉, 장르는 단순한 텍스트 유형이 아니라,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구현되는 의도적 언어 행동의 틀이다. 예를 들어, '기도문', '편지', '법령', '시' 등은 각기 다른 구조와 언어 양식을 갖는다. 따라서 장르 문법은 장르에 따라서 해당 언어가 선택되고 구성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 번역의 문체 분석은 단순한 언어 비교를 넘어, 해당 담화 텍스트의 기능과 독자 수용성을 살피는 작업이다. 장르 문법은 성경의 각 장르의 담화 목적과 구조를 고려하여 개별 장르의 문체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와 같은 성경의 갈래, 즉 장르는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장르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인 문체로 표현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율법서는 명령의 표현, 역사서는 사건의 표현, 시가서는 정서의 표현, 예언서는 선포 화법의 표현, 서신서는 당부의 표현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장르 문법을 중심으로 한『새한글』의 장르별 문체 분석을 통하여 성경 번역이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장르적 담화 기능을 고려한 문체 전략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 주리라 기대한다.[5]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개역개정』과의

해』, 김서형 외 역 [서울: 역락, 2021]; S. Eggin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2nd ed. [New York; London: Continuum, 2004]) 등의 연구에서부터 형성된 문법 모형인데, 설명하기, 주장하기 등 장르와 관련하여 문법을 살핀 냅과 왓킨스의 연구가 많이 알려져 있다. P. Knapp and M. Watkins,『장르, 텍스트, 문법: 쓰기 교육을 위한 문법』, 주세형, 김은성, 남가영 역 (하남: 박이정, 2007);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Sydney: UNSW Press, 2005).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할리데이의 체계기능언어학이 일반 텍스트 담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유용한 언어 모형이라는 점을 극대화하여, 소위 장르 문법이 등장하였다. 참조, M. A. K. Halliday and C. M. I. M. Matthiessen,『Halliday의 기능문법 입문 체계기능언어학』, 한정한 외 역 (하남: 박이정: 2022);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4). 국내에서는 제민경이 장르 문법의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고, 유혜령이 인용구문 차원에서 장르 문법을 다루고 있다. 제민경,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2015); 유혜령, "장르 중심 문법교육을 위한 인용표현 기술 방안 연구",「문법교육」42 (2021), 89-129. 국내에서 성경 번역 차원에서 이 이론이 적용되어서 나온 연구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체계기능언어학을 이용하여 신약성서의 담화를 분석하고 있는 김두석의 논문을 유관 논문으로 볼 수 있다. 김두석,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담화분석과 신약성경해석: 언어학적 방식의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사례연구",「신약연구」22:2 (2023), 218-262. 이 논문에서 장르 문법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개별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할 때 장르 문법 모형만큼 특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4) J. R. Martin and D. Rose, *Genre Relations: Mapping Culture* (London: Equinox, 2008).

5) 장르 문법은 체계기능언어학 전통의 교육 혹은 장르 연구에서 등장한다. J. R. Martin, *English Text: System and Structure*에서는 장르를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보고, 상황 차원의 사용역(register)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다가 J. R. Martin and D. Rose,

비교를 통해『새한글』이 지니는 장르별 문체론적 특성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1.2.2. 문체론적 분석 틀

이 연구에서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 등 다양한 갈래로 이루어진 개별 장르별 성경이 보이는 언어 표현을 각각 문체론적으로 분석하여 살피고자 한다. 각 장르를 대표하는 핵심 본문을 대상으로 하여 문체의 요소, 즉 인칭 대명사 표현, 접속과 종결 표현, 인과구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분석 틀로 설정하도록 한다.

<문체론적 분석 틀>
인칭 대명사 표현: 화자-청자 관계, 인물 지칭의 명료화
접속과 종결 표현: 절 및 문장 연결 방식, 담화의 리듬과 권위
인과구문 표현: 논리적 흐름, 신학적 메시지의 전달 방식

첫째, 인칭 대명사 표현을 통해서 화자와 청자 관계를 파악하여 인물 지칭의 명료화를 확보할 수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새한글』은 성경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칭의 대상인 인칭 대명사 표현을 살피는 것은 주체, 객체,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6]

둘째, 접속과 종결 표현은 절 혹은 문장의 연결 방식을 통해서 장르별 텍스트 담화의 리듬과 권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특히『새한글』은 기존의 성경에 비해서 문장 숫자를 2배 정도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문장의 복잡도를 낮추어 주고 간결하게 문장을 나누어서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셋째, 인과구문 표현은 이어지는 문장들의 논리적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뒤에서 보겠지만, 장르별 성경에서 신학적 메

---

*Genre Relations*에서 장르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의 구성이면서 문화 안에서 사회적 관행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장르 문법은 전통 문법에서 확장되어, 담화 수준, 사회적 목적, 교육적 적용으로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Genre Relations*에서는 장르를 단순히 텍스트 유형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지닌 단계적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기술하는 틀로 인식하고 있다.

6) 박영복은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대명사가 발달한 형태의 언어로서, 주체와 객체 그리고 화자와 청자를 매우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영복, "구약성경에서 대명사의 번역",「성경원문연구」50 별책 (2022), 48; 박형대는『새한글』이 인칭 대명사의 강조 용법을 살린 번역임을 상기하고 있다. 박형대,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7 (2025), 172-173; 한편 김동혁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다수의 유럽어에서 이인칭 대명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원문의 손윗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혁,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성경원문연구」57 (2025), 151-153.

시지의 전달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세 가지 외에도『새한글』이 지니는 문체론적 특성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는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분석 틀을 갖고 성경 원문 번역에 나타나는 한국어 표현의 정확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의 용이성을 중심으로『새한글』의 문체론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율법서의 문체론적 특성

히브리어로 토라(Torah)라고 불리는 율법서는 구약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칭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담은 법적 담화 장르로, 명령문 중심의 문체가 특징이다. 장르 문법 관점에서 율법서는 규범적 언어 사용, 명확한 인과관계, 권위적 화법을 담고 있으며, 번역 시 문체 선택은 독자의 이해도와 수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새한글』과『개역개정』의 문체를 비교하여 율법서의 문체론적 특성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2.1. 인칭 대명사 사용의 변화 및 생략과 법령체

율법서에서 인칭 대명사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새한글』에서는 율법서에 나타나는 명령의 수신자를 개인 표현에서 전체를 나타내는 일반화의 특징을 보인다. 불필요한 단수 인칭 대명사를 번역하지 않는다든지, '너'와 같은 단수 인칭 대명사를 '너희'와 같은 복수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명령의 일반화를 꾀하고 있다.

출애굽기 22:26[7]

『개역개정』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새한글』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위 예시를 보면『개역개정』에서 사용된 '너/네',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새한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해당 내용을 개인을 대상으로 말하

7) 이하 예시로 든 성경 구절의 밑줄은 필자의 것이다.

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하여 말하는 방식이다.

출애굽기 34:20

『개역개정』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새한글』 나귀의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어린양을 바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그가 누구든 너의 아들들 가운데서 맏이를 대신하여 너희가 다른 것을 바칠 수 있다. 그 누구도 내 앞에 빈손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위 밑줄 부분을 보면『개역개정』에 있지 않은 '너희'라는 복수 표현이『새한글』에는 나타나 있다. 앞에서는 '너'라는 단수 표현으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대유 표현으로 '너희'가 등장한 것이다. 위 구절에서 '너'는 주로 모세 개인을 지칭했지만 '너희'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실천해야 하는 규례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새한글』에서는 언약의 행위자(Actor)가 분명하게 나타남으로써 의무 주체의 확장이 문법적으로 시각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2.2. 접속 및 종결 표현의 명료화 및 현대화

율법서는 규칙과 명령을 제시하는 구조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접속 및 종결 표현을 통해서 문장의 논리적 흐름이 나타난다.『새한글』에 나타난 접속 및 종결 표현의 특징은 한 마디로 복잡한 겹문장들을 작게 쪼개서 병치 나열하여 간결하게 표현했다는 점이다.

레위기 19:3

『개역개정』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새한글』 사람마다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위에서『개역개정』은 하나의 문장으로 나열하고 있음에 비하여『새한글』은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병치(parataxis) 나열을 하고 있다. 물론 전자에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로 문장을 맺었다고 할지 모르나 정확한 구분

이 되어 있지는 않은 양상이었다. 이에 비하여 후자에서는 절 단위의 독립 및 종결을 확실히 하고 있어서 결국 접속보다는 단락적 병치를 강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새한글』에서 마침표(.)를 사용해서 문장 구분을 확실히 해 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8)]

레위기 19:11-12

『개역개정』 1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 말하지 말며
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새한글』 1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고, 서로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12 내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위에서『개역개정』은 '-지 말며'로 종결이 아닌 접속의 형식을 지니고 있음에 비해서,『새한글』은 명령 하나를 완전한 종결 표현 '마라'로 끝내고 다음 명령으로 이동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는 규정 하나하나가 사법적 독립성을 갖도록 구성한 것인데, 그것은 문장부호로 마침표(.)를 사용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개역개정』에서 사용된 '말라'는『새한글』에서는 '마라'로 수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본래 '말라'는 간접 명령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직접 명령 표현에서는 '마라' 혹은 '말아라'로 적어야 어법에 맞는다.[9)]

또한『개역개정』은 의고체적 명령 종결형 '-니라'를 사용하여 의식적·선포적 어투를 보이고 있음에 비하여,『새한글』은 '여호와다'에서 보듯이 현대적 한국어 종결 표현 '-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명확히 하고 현대적인 평서적 종결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종결 표현의 명료화 및 현대화는 독자 친화적 접근 방식을 나타내 주면서 동시에 동일 종결 구절을 일정한 형태로

8)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개역개정』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장부호를 붙이지 않고 있는데,『새한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자에서는 겹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 비하여『새한글』에서는 상대적으로 홑문장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독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새한글』에서는 도치 구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장부호 사용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한편,『새한글』에서 절 단위의 독립이라는 말은 이것을 의미한다. 장르 문법에서는 문장이라는 표현보다 절(clau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개 홑문장을 가리키곤 한다.

9)『개역개정』이 나온 1998년에는 '말아라'라는 명령형 종결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어문 규범에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새한글』이 나온 시기(2024)에는 '말아라'도 허용되고 있다(『한글 맞춤법』 제18항 해설 참고). 이처럼 성경 번역의 역사는 맞춤법의 역사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고정해서 법령 장르의 ‘응결성(cohesion)’을 강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10)]

2.3. 인과구문의 명료화와 논리적 구조

율법서의 인과구문 표현은 율법 규정의 이유와 결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문체적 명료화가 요구된다.

레위기 19:20

『개역개정』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새한글』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정액을 쏟았다고 하자. 그 여자가 노예이고, 다른 남자와 약혼했지만,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그냥 자유의 몸이 되지도 못했다고 하자. 그럴 때 손해는 메꾸어 주어야 한다.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개역개정』은 조건 상황을 ‘만일 ~하면’처럼 하나의 간접적 인과구문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새한글』에서는 여러 절로 쪼개고 있으며, ‘~했다고 하자’라는 법령체의 가정 문구(legal hypothetic)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명료화 용법을 구사하는 셈이다. 『새한글』에서는 ‘~하자’, ‘~하자’로 종결 표현이면서도 그 의미에서는 조건절의 뜻을 포함하여, 맨 마지막에는 ‘그럴 때’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 이후에도 문장을 나누어서, ‘~ 것은 아니다.’ 및 ‘~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논리적으로 인과구문 표현의 효과를 극대

10) 보그랑드와 드레슬러(R. de Beaugrande and W. Dressler)는 텍스트가 이루어지는 요소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텍스트의 형식적 연결성인 응결성(cohesion)과 의미적 통일성인 응집성(coherence)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응결성은 어휘적, 문법적 장치(예: 접속 표현, 대명사, 반복 표현 등)를 통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고, 응집성(coherence)은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R. de Beaugrande and W. Dressler, 『텍스트 언어학 입문』, 김태옥, 이현호 역 (서울: 한신문화사, 1995);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1981). 그동안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이 두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왔는데, 2025년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교과서에서부터는 바로 잡혀서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형식적인 응결성(cohesion)은 결속성, 결속 구조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화하고 있다.

3. 역사서의 문체론적 특성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 왕정 시대의 흥망,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을 서술하는 장르로, 서사적 흐름과 인물 중심의 기술이 특징이다.[11] 장르 문법 관점에서 역사서는 인물 지칭의 명확성, 시간적 연결성, 행위와 결과의 인과성 구조가 필요하다.

3.1. 인칭 대명사 사용과 인물 지칭의 명료화

역사서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인칭 대명사 사용은 인물 간의 관계와 서술의 명확성을 좌우한다.

사무엘상 17:32

『개역개정』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새한글』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기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위에서 보면『개역개정』에서 ‘주의 종이 가서’라고 의례적 지칭 표현이 사용된 것을『새한글』에서는 ‘임금님의 종인 제가 가서’라고 하면서 담화 참여자를 반복하여 사용해서 결국 명확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장르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임금님의 종인 저’라고 하여서 주제화(Theme), 즉 전경화를 선명히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12] 또 ‘이 필리스티아 사람’이라고 하여 지시 표현인 ‘이’를 사용하여 인물 지칭의 명료화를 의도하고 있기도 하다.[13]

---

11) 여기서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지칭한다.

12) 장르 문법은 본래 체계기능언어학(SFL)에서 특화되어 나온 이론이다. 따라서 SFL의 텍스트적 대기능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부(Theme)와 설명부(Rheme) 이론은 장르 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이관규 외,『체계기능언어학 개관』(서울: 사회평론, 2021)를 참고하라.

13) 실제로『새한글』사무엘상 17장의 곳곳에서 골리앗을 지칭하면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3.2. 접속 및 종결 표현과 사건 연결의 리듬

역사서의 사건 전개는 접속 표현을 통해 시간적, 인과적 흐름을 형성한다. 특히『새한글』의 접속 표현을 통해서 문장의 리듬과 몰입도가 고양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열왕기상 3:28

『개역개정』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새한글』 임금이 이렇게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러고는 임금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본 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금의 마음속에 있어서 재판을 옳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의『개역개정』은 겹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접속 표현 '-으니'와 종결 표현 '-더라'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의고체 종결 표현을 통해서 권위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텍스트의 거룩성 및 정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비해『새한글』은 상대적으로 짧은 문장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접속 표현으로 '그러고는'을 사용하여 사건의 단계화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 문장을 종결 표현 '-기 때문이다'를 사용하여 조건, 이유를 밝히고 있다.[14]

이는 결국『새한글』이 화자의 심리, 감정, 인식을 구체화하며, 조건, 시간 표지를 통한 사건, 경험의 재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독자 지향성의 특징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식은 '그러고' 같은 접속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또 '-더라'와 같은 의고체에서 벗어나 '-이다'와 같은 현대

라고 한다거나,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 등 구체적인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 지칭의 명료화를 꾀하고 있다.

사무엘상 17:48

『개역개정』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새한글』 그러자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일어나, 다윗과 마주하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과 마주하려고 빠르게 필리스티아 전열 쪽으로 달려갔다.

14) 접속 표현에서 가장 두드러진『새한글』의 특징은 '그러고'라고 하는 접속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개역개정』에서는 '그리고'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번 번역본에서 바로 잡았다. '그리고'는 접속 부사임에 비해서 '그러고'는 '그리하고'의 축약형인 동사이다. 영어로 구분한다면 '그리고'는 'and', '그러고'는 'so then' 정도의 의미 차이를 지니고 있다.

적 종결 서술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3.3. 인과구문의 서사적 기능

역사서에서는 인물의 행위와 그 결과를 설명하는 인과구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체적 선택은 사건의 논리성과 감정적 설득력을 좌우한다.

사무엘상 18:14
『개역개정』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새한글』 다윗은 그가 가는 길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듯이, 『개역개정』은 두 문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며, 인과관계를 독자가 추론하게 하였다. 이에 비해 『새한글』은 '-기 때문이다'라는 명시적 인과구문을 사용하여 논리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신학적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표현은 '지혜롭게 행하니라'보다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묘사로, 독자의 현실적 이해를 돕고 있다.

앞서 열왕기상 3:28에서도 보았지만 『새한글』은 '그러고'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앞 문장의 내용을 결과로 이어 주면서, 뒤 문장에서 '-기 때문이다'와 같이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마무리하여서, 결국 인과구문으로서의 서사적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다.

4. 시가서의 문체론적 특성

시가서는 찬양, 탄식, 지혜의 교훈 등 다양한 정서와 신앙 고백을 담은 시적 장르로, 화자의 내면 표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묘사가 중심이다.[15] 장르 문법 관점에서 시가서는 정서적 밀도, 형식적 반복, 은유적 인과구문을 통해 독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유도하며, 문체는 그 전달 방식의 핵심이다.

4.1. 인칭 대명사 사용과 정서적 거리 조절

15) 여기서 시가서는 구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칭한다.

시가서에서는 1인칭 대명사가 자주 사용되는데, 화자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시편 23:1-3

『개역개정』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새한글』
1 노랫말(시). 다윗에게 속한 것.
(혼잣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2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3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해서라네.

시편 23편은 유명한 다윗의 시이다. '4.2. 접속 및 종결 표현과 병렬 구조의 현대화'에서도 언급되겠지만,『개역개정』에서 다윗은 장엄한 의미를 지닌 예언적 미래형 표현 '-으리로다'(엄밀히는 '-으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새한글』에서는 화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면서도 정서적 표현인 '-네'를 통해서 화자의 직접성을 높이고 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에서 보듯이 1인칭 대명사 '나/내'의 심리적, 정서적 친밀감이 바로 지금 고백하는 현재형 '-네'로 나타나 있다. 이는 신앙 고백의 실재감을 드러내고 화자와의 정서적 거리를 조절해 주어 친밀감을 높여 준다.『개역개정』에서도 그렇지만, 특히『새한글』에서는 1인칭 '나/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16]

인칭 대명사에 집중하여 보면,『개역개정』2절의 '그'가『새한글』2절에서는 빠져 있다. 이는 1절에서 '여호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2절에서는 생략되어도 문맥상 이해에 문제가 없음을 보인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2절과 3절의『개역개정』에서는 1인칭 대명사 '나/내'가 2번 나오는데,『새한글』에서는

16) 다른 말이긴 하지만,『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의 '노랫말(시)'를 밝혀서 텍스트의 장르 성격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더불어 시행(詩行)을 구분하고,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심지어는 '(혼잣말)' 같은 원문에 없는 표현까지 넣음으로써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추구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4번 나온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자가 겹문장으로 번역했음에 비하여 후자는 여러 작은 문장으로 나누어 병렬 방식으로 쪼개서 번역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새한글』에서는 1인칭 대명사 '나/내'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화자의 신앙 고백을 통한 화자의 정서적 거리를 좁혀 주는 효과를 낸다.[17]

4.2. 접속 및 종결 표현과 병렬 구조의 현대화

시가서는 반복과 병렬 구조를 통해 리듬과 강조를 형성하며, 접속 표현을 통해서 시적 흐름이 조율된다.

시편 1:1

『개역개정』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새한글』 1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2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 내어 읽습니다.

시편 1:1에서는『개역개정』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가『새한글』에서는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앉지 않습니다.'로 바뀌어서, 현대적 병렬 구조와 종결 형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시적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의 언어 감각에 맞춘 문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1절의 겹문장 하나가 네 개의 작은 문장으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어서 시적 리듬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편 종결 표현을 보면, 시편 1:2의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에서 보듯이,『개역개정』에서는 '-는도다'라는 예스럽고 장중한 어조를 띠는 감탄을 나

17) 김동혁은 히브리어와 한국어가 지니는 이인칭 대명사 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개역개정』및『새한글』번역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특히 높임 표현을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상대방이 화자보다 높은 사람일 경우, 한국어는 적절한 대명사 표현이 없지만 히브리어 및 영어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어서 한국어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어 번역에서는 대명사가 아닌 명사로 대치되거나 생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동혁, "『새한글성경』구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 142-163.

타내는 시적 종결 어미를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서 『새한글』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소리 내어 읽습니다.'에서 보듯이 '-습니다'라는 현재 계속되는 동작을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곧 종결 표현의 현재성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앞서 시편 23:1에서도 종결 표현의 이런 용법을 본 적이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없으리로다'로 의고체를 사용했는데, 『새한글』에서는 '없네.'라고 하여 정서적 친밀감을 드러내는 독자 친화적 현대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4.3. 인과구문의 은유적 구조와 명료화

시가서의 인과구문은 종종 은유적이며, 신앙적 체험과 감정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새한글』에서는 인과구문을 도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시가서의 구어적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정서적, 주관적 감정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보여 준다.

시편 23:3-4

『개역개정』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새한글』
3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해서라네.
(기도)
4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 됩니다.

위의 시편 23:3을 통해 볼 때, 『개역개정』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에 두고 있으나 『새한글』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위해서라네.'를 맨 뒤에다가 두어서 도치를 통한 전달 의도의 명료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절을 통해 볼 때,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에서 보다시피, '-이라'라는 종결 표현

이 시적으로 원인,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새한글』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까요.'에서처럼 '-니까'라는 원인의 연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도치 표현을 통해서 원인, 이유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있다. 이때 '요'는 높임의 보조사로 덧붙은 것이다.

5. 예언서의 문체론적 특성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 전달하는 장르로, 권위적 선포, 감정적 호소, 신학적 인과관계가 핵심이다.[18] 장르 문법 관점에서 예언서는 공적 담화의 형식, 예언자의 화법, 논리적 구조의 명료성을 요구하며, 문체는 메시지의 설득력과 수용성을 좌우한다.

5.1. 인칭 대명사 사용과 예언자 화법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과 예언자, 그리고 백성 간의 관계가 대명사를 통해 드러난다. 특히 1인칭과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화자의 정체성과 권위를 나타내 주는데, 곧 예언자의 화법을 보여 준다.

예레미야 1:7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새한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 주도록 해라!

위에서 보듯이, 『새한글』에서는 『개역개정』의 하나의 겹문장 표현을 작은 문장 여러 개로 쪼개서 제시하고 있는데, 명령 형식의 반복을 통해서 명령을 강화하여 예언자의 권위를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이르시되'를 '말씀하셨습니다.'로 바꾸어서 현대적 존대 표현과 공적 담화 형식으로 단정적

18) 여기서 예언서는 대예언서 3권과 소예언서 12권을 지칭한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서는 예레미야애가,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함된다.

으로 표현하여 위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를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로 바꾸고 있는데, 곧 직접 인용과 1인칭 대명사 사용을 통해 예언자의 내면 표현과 청자의 반응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새한글』에서는 특이하게 원문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삽입 표현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5.2. 접속 및 종결 표현과 예언 담화의 구조

예언서의 메시지는 경고와 약속, 심판과 회복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접속 표현은 담화의 논리적 흐름을 조율해 준다.

이사야 1:18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새한글』 (하나님) "자, 우리가 다투어 보자.
—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
너희의 죄가 짙은 붉은색 같더라도 눈처럼 하얘질 것이다.
새빨갛게 붉더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위에서 보면, 『개역개정』의 '말씀하시되'를 『새한글』에서는 '말씀하십니다'로 바꾸고 있는데, 이는 겹문장을 작은 문장으로 표현하여 현대적 종결 어미와 존대 표현을 잘 드러냄으로써 예언자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다. '변론하자'는 '다투어 보자.'로 바꾸고 있는데, 예언서의 법적 담화를 대화적 담화로 바꾸어서 결국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를 보인다. 또한 '오라'를 '자'라는 감탄사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어 성격을 짙게 반영하고 있다. 이는 예언의 직접적인 초청의 성격을 강조하는 셈이 된다. 한편 『새한글』에서는 '(하나님)'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이리 말한 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나타내 주는 것으로,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 준다.

위에서 『개역개정』은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의 '-리라' 종결 표현을 써서 객관적 추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서, 『새한글』에서는 '양털처럼 될 것이다.'의 '-ㄹ 것이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담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분명한 확신의 뜻을 보이고 있다.

5.3. 인과구문의 신학적 논리와 명료화

예언서의 인과구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논리를 설명하며, 문체적 명료화가 메시지의 설득력을 결정한다.

예레미야 5:6

『개역개정』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새한글』 이러므로 그들을 쳐 죽일 것입니다, 숲에서 나온 사자가. 거친 들판의 늑대가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표범이 그들의 도시들을 노려보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마다 잡아 찢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반 행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보다시피 『개역개정』은 많은 절을 담은 겹문장을 즐겨 쓰고 있는데, 『새한글』에서는 이것을 여러 개의 작은 문장으로 나누고 있다. 예레미야 5:6은 본래 『개역개정』에서 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새한글』에서는 5개 문장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에서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로 기술한 것을 후자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을 쳐 죽일 것입니다, 숲에서 나온 사자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숲에서 나온 사자가.'를 뒤에 배치해서 어순이 도치된 상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본래 히브리어 어순과 한국어 어순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는데, 『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 어순에 맞추어서 배열하고 있는 것이 이번 번역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19]

인과구문 차원에서 위 구절을 살펴보면, 『개역개정』은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라고 표현함에 비해서 『새한글』은 '그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반 행위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표현하여, 즉 '-기 때문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한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선·후행절의 인과관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논리적 구조가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신학적 메시지의 전달력이

19) 사실 히브리어와 한국어의 본질적인 어순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어다운 번역이라 하면 소위 도치 어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새한글』에서는 이 점보다 원문의 뜻을 더욱 강조하여 『개역개정』의 표현을 도치시킨 것이다.

높아지며, 독자의 이해를 돕게 되는 문체 전략이 되고 있다.

6. 서신서의 문체론적 특성

서신서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장르로, 본래 논리적 설명, 신앙적 권면, 공동체적 호소가 중심이다.[20] 장르 문법 관점에서 서신서는 논증 구조의 명료화, 화자의 권위와 친밀감, 교리적 인과관계의 설득력을 요구한다. 그 문체는 독자의 이해와 실천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6.1. 인칭 대명사 사용과 공동체 지향성

서신서에서는 1인칭 복수와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자주 사용되며, 공동체적 정체성과 사도적 권위를 표현한다.

로마서 8:9

『개역개정』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새한글』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26

『개역개정』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새한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

20) 서신서는 전체 21권으로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뉜다. 바울 서신은 13권으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해당한다. 일반 서신은 9권으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해당한다.

신 간청해 주십니다.

위의 로마서 8:9를 보면, 『새한글』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라는 대명사가 아닌 '여러분'이라는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높임 의미가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관계성과 담화적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로마서 8:26을 보면, '성령'이 아닌 '성령님'을 사용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나약한 우리'로 『새한글』에서 달리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화자와 독자의 공동체성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 이처럼 '우리',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모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 등 담화적 지시 대명사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21] 이처럼 존대 표현에 이은 호칭의 현대화를 통해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 즉, 담화적, 관계적, 설득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2. 접속 및 종결 표현과 논증 구조의 명료화

서신서는 교리적 논증을 전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접속 표현은 논리적 흐름과 설득력을 결정한다.

로마서 8:12	
『개역개정』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새한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역개정』에 비해서 『새한글』은 접속 표현을 많이 사용하

21) 『새한글』의 서신서에서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 등 담화적 지시 인칭 대명사 표현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 그 섬 토박이들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따듯이 맞아 주었던 것이다. 비가 내리고 추웠기 때문이다. (행 28:2)
-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롬 6:4)
-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롬 7:4)

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그렇다고'를 추가하여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대조 및 전환하는 표지로 사용하여서, 결국 교리적 논증을 계단식으로 풀어내고 있다.[22] 또한 『개역개정』의 '-니라'와 같은 의고체적 표현을 『새한글』에서는 '-ㅂ니다'와 같은 현대적 종결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속 부사어의 적극적 사용과 현대적 종결 표현을 통해서 논증 구조의 명료화를 달성하고 있다.

6.3. 인과구문의 교리적 설득력 제고

서신서의 인과구문은 교리적 설명과 실천적 권면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문체적 명료성이 핵심이다.

로마서 8:2

『개역개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새한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확인했듯이 『새한글』에서는 '-기 때문입니다'라는 인과관계를 확실히 나타내 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개역개정』의 '해방하였음이라'를 『새한글』에서는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대적인 문장 구조를 통해서 교리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신학적 개념의 전달력을 높이고, 독자의 이해를 돕는 문체 전략으로 평가된다.

『개역개정』에서는 종결 어미나 문맥이 근거·원인 관계를 암시하는 서술 방식을 취했음에 비해서 『새한글』에서는 '때문입니다', '-기 때문입니다', '-어서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하여', '이렇게 해

22) 『새한글』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런데', '하지만', '그러면', '그뿐 아니라', '그래도', '마찬가지로', '곧', '이렇게 해서' 등 다양한 담화 연결사, 즉 접속 표현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즉 원인, 전환, 대조, 결론 표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논증 흐름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곧 논증 구조의 명료화를 뜻한다고 하겠다. 또한 『개역개정』에서는 문어적 종결 표현, 즉 '하느니라', '아니니라', '하리라', '없으리라', '되리라'를 많이 사용하여 추상적, 교리적 서술의 효과를 봄에 비해서 『새한글』에서는 구어적 종결 표현인 '입니다', '해 주십니다', '될 것입니다', '말이지요',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합니다'와 같은 단정적 서술 효과를 꾀한다든지, 강조, 확신, 감탄의 뜻을 지닌 '입니다!', '않습니까?', '말입니다.' 같은 대화적, 설득적 서술 효과를 꾀하는 종결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서', '곧', '말입니다'와 같은 명시적 원인 표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곧 인과구문의 교리적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7. 결론

7.1. 요약

본 연구는『새한글』의 문체론적 특성을 장르 문법 기반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인칭 대명사 표현, 접속 및 종결 표현, 인과구문 표현을 분석 틀로 선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성경의 장르별 문체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율법서의 문체는 현대 한국어의 구어적 리듬과 논리적 구조 명료성에 맞추어 표현함으로써, 법적 담화의 권위는 유지하면서도 독자 친화적 전달 방식을 구현하였다. 인칭 대명사의 생략 또는 현대화, 접속 표현의 병치, 종결 어미의 현대적 표현은 장르 문법적 현대화 문체 전략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서의 문체는 서사적 단계화, 인물 지칭의 명료성, 시간적 흐름의 자연스러움을 중심으로 현대화하였다. 인칭 대명사의 명료화, 접속 표현의 구어적 전환, 인과구문의 명시화는 모두 장르 문법적으로 현대 독자에게 친숙한 문체 전략이다. 이러한 문체적 선택은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현대적 언어로 효율성 있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서의 문체는 정서적 표현의 직접화, 병렬 구조의 현대화, 인과구문의 도치 및 명료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적 장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독자의 감성에 맞춘 문체 전략으로, 신앙 고백의 실재성과 감정적 몰입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감정, 관계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사용, 담화적이고 구어적인 접속과 종결 표현, 도치를 통한 명시적 인과구문 표현 등은 시가서 문체의 직접화를 보여 준다.

예언서의 문체는 공적 담화의 현대화, 예언자 화법의 생생한 전달, 신학적 인과구문의 명료화를 구현하고 있다. 이는 예언의 권위는 유지하면서도 독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문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인칭 대명사의 정체성 및 권위 강화, 접속 표현의 대화적 전환, 종결 표현의 현대화는 모두 장르 문법적으로 현대적 언어 감각을 반영한 결과이다.

서신서의 문체는 논증 구조의 현대화, 공동체 지향 강화, 교리적 인과구

문의 명료화를 반영한다. 이는 사도적 권위는 유지하면서도 현대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문체 전략이다. 인칭 대명사의 공동체적 사용, 접속 표현의 논리적 조율, 종결 어미의 현대화는 장르 문법적 특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체 전략은『새한글』이 단순한 번역을 넘어, 현대 한국어의 문체적 흐름과 독자 수용성을 고려한 언어적 재구성임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문체론적 특징을『개역개정』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전략 및 표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개역개정』과『새한글』의 장르별 문체 및 표지

성경 장르	『개역개정』		『새한글』		장르 문법적 대응
	문체	표지	문체	표지	
율법서	의고체적 명령 표현, 간접적 인과구문	‘하라’, ‘말라’	직접적 명령, 명시적 인과구문	‘마라’, ‘말아라’, ‘-기 때문이다’	법적 담화의 명료화
역사서	의례적 지칭 표현, 문어적 표현	‘그’, ‘이’	인물 지칭 명확, 구어적 병렬 표현	‘그러자’, ‘그러고’	서사 흐름의 자연적 단계화
시가서	시적 종결 표현, 은유적 표현	‘-이라’, ‘-나이다’	도치 표현, 직접적 정서 표현	‘-니까요’, ‘-습니다’	정서 표현의 직접화
예언서	객관적 추정 표현, 권위적 표현	‘-리다’, ‘-느니라’	확신의 표현, 인과의 명료성, 대화적 담화	‘-ㄹ 것이다’, ‘-기 때문입니다’	예언 담화의 설득력 향상
서신서	교리적 논증 표현, 의고체적 문어 표현	‘우리’, ‘형제들’	논리 구조의 명료성, 공동체 지향의 구어적 표현	‘그렇다고’, ‘우리’, ‘형제 여러분’, ‘-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지향 및 논증 구조의 명료화

7.2. 과제

약 20여 종류의 한국어 성경 번역본이 존재한다.『새한글』은 젊은 세대가 현대적 감각으로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문의 의미와 형식, 예컨대 원문의 어순 등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이는 전통적인 소위 성경체 문투를 벗어나려고 하였고,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현대 한국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쉬운 성경을 지향한 번역본들이 나온 바 있다.『개역개정』은 물론이고『새번역』,『공동개정』,『우리말 성경』 등 매우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다. 이들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인데, 이번에 나온『새한글』이

다른 것들과 차이 나는 점은 무엇인지 더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어체 성경을 지향하는『새한글』이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번역자가 아닌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서 문체 수용성 평가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는 한국어와 한글의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19세기 후반부터 21세기 현재까지 한국어의 변천 과정을, 음성은 물론이고 문자 차원에서도 보여 준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성경 장르별 문체의 차이와 함께 역사적 변천 과정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문어체와 구어체가 엄격히 구분되던 시절부터 현재의 혼용 시대, 미래의 구어체 중심의 문체 시대까지도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2년간 39명의 전문가의 협력 작업으로『새한글』이 나왔는데, 이 번역본의 실용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예컨대『개역개정』으로 성경 공부를 한 청소년들과『새한글』로 성경 공부를 한 청소년들의 교육적 효용성을 상호 비교해서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새한글』이다 보니, 언어 표현의 용이성 및 현재성이 주목되곤 하는데, 이런 점들이 실제 독자 차원에서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과제일 것이다.[23]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개역개정판, 문체론적 특성, 장르 문법, 인칭 대명사, 접속과 종결 표현, 인과구문.

New Korean Translation, New Korean Revised Version, stylistic characteristics, genre grammar, personal pronouns, connection and termination expressions, causal phrases.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8일)

23) 그런 점에서 최근에『새한글』을 다각도에서 활용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보고한 권순희, 유선명, 이수인, 이승문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순희, "『새한글성경』과『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한자 문화권 유학생들의 이해도 차이 연구",「성경원문연구」57 (2025), 211-240; 유선명, "『새한글성경』과『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 – 욥기 번역에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 ",「성경원문연구」57 (2025), 193-210; 이수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새한글성경』",「성경원문연구」57 (2025), 262-291; 이승문,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새한글성경』활용 방안",「성경원문연구」57 (2025), 241-261.

<참고문헌>(References)

권순희,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한자 문화권 유학생들의 이해도 차이 연구”, 「성경원문연구」 57 (2025), 211-240.

김동혁,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 「성경원문연구」 57 (2025), 142-163.

김두석,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담화분석과 신약성경해석: 언어학적 방식의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사례연구”, 「신약연구」 22:2(2023), 218-262.

박영복, “구약성경에서 대명사의 번역”,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46-54.

박형대,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7 (2025), 164-192.

에긴스, 수잔, 『체계 기능 언어학의 이해』, 김서형 외 역, 서울: 역락, 2021; Eggins, 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2nd ed., New York; London: Continuum, 2004.

유선명,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 – 욥기 번역에 나타난 특성들을 바탕으로 –”, 「성경원문연구」 57 (2025), 193-210.

유혜령, “장르 중심 문법교육을 위한 인용표현 기술 방안 연구”, 「문법교육」 42 (2021), 89-129.

이관규 외,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서울: 사회평론, 2021.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224-251.

이수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 『새한글성경』”, 「성경원문연구」 57 (2025), 262-291.

이승문,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 「성경원문연구」 57 (2025), 241-261.

제민경,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5.

채영삼, “머리말”,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 (2024), 5-6.

de Beaugrande, R. and Dressler, W., 『텍스트 언어학 입문』, 김태옥, 이현호 역, 서울: 한신문화사, 1995;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1981.

Halliday, M. A. K., Hasan, R., and Christie, F.,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Halliday, M. A. K. and Matthiessen, C. M. I. M., 『Halliday의 기능문법 입문 체계기능언어학』, 한정한 외 역, 하남: 박이정, 2022;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4.

Knapp, P. and Watkins, M.,『장르, 텍스트, 문법: 쓰기 교육을 위한 문법』, 주세형, 김은성, 남가영 역, 하남: 박이정, 2007;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Sydney: UNSW Press, 2005.

Martin, J. R., *English Text: System and Structure*, Amsterdam: John Benjamins, 1992.

Martin, J. R., and Rose, D., *Genre Relations: Mapping Culture*, London: Equinox,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Based on Genre Grammar

Kwankyu Le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NKT) from the perspective of genre grammar, focusing on personal pronouns, connective and sentence-ending expressions, and causal constructions in order to identify genre-specific stylistic strategi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NKT reconstructs its style by reflecting contemporary Korean linguistic sensibilities and reader acceptability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meaning and authority of the biblical text.

In the Pentateuch, the style preserves the authority of legal discourse while enhancing colloquial rhythm and logical clarity. The selective omission and modernization of personal pronouns, the paratactic use of connectives, and the modernization of sentence endings can be interpreted as genre-grammatical strategies aimed at securing both normativity and readability.

The Historical Books are modernized through the structuring of narrative stages and the natural flow of temporal progression. The clearer use of personal pronouns for referential clarity, the explicit marking of causal relations, and the colloquialization of connectives contribute to improving reader comprehension and engagement.

The Poetic Books are characterized by the direct expression of emo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parallel structures. The active use of personal pronouns expressing emotion and relationships, along with discourse-oriented and colloquial connective and sentence-ending expressions, enhances emotional immersion. In particular, the explicitness of causal constructions through inversion simultaneously achieves poetic tension and semantic emphasis, strengthening the realism of confessional faith.

The Prophetic Books maintain the nature of public discourse and prophetic authority while strengthening communicative effectiveness through modern language. The clarification of the speaker’s identity through personal pronouns,

the dialogic use of connectives, and the explicit presentation of theological causality function as key persuasive strategies.

The Epistles are marked by the modernization of argumentative structure and the reinforcement of community orientation. The communal use of personal pronouns, the logical coordination of connectives, and the modernization of sentence endings enhance the clarity and persuasiveness of doctrinal communication.

In conclusion, the NKT preserv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ach genre while strategically adjusting linguistic forms to realize a style aligned with contemporary Korean usage. It can thus be evaluated as a reader-oriented linguistic reconstruction that goes beyond a mere translation.